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8: 감정의 체험 순서

『신앙감정론』 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 여덟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230~244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양쪽 극단을 다 겨눈다. 한쪽에는 “큰 공포 뒤에 큰 기쁨”이라는 순서 자체를 조작이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광야를 거쳐 위로로 이끄신다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예로 보여 준다. 이어서 반대쪽 사람들을 겨눈다. 그 순서를 밟았다는 사실을 진짜 회심의 증거로 삼는 사람들이다. 에드워즈는 공포가 곧 죄의 깨달음은 아니라고 답한다. 또 마귀는 준비 단계와 그 순서까지 흉내 낼 수 있고, 성경은 어떤 순서도 구원의 증거로 계시하지 않았다. 반대로 정해진 순서를 밟지 않았다고 가짜인 것도 아니다. 성령의 길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신앙을 점검할 때는 체험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이루신 일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 표지 카드

표지 8(소극): 양심이 깨어나 죄를 깨달은 뒤 일정한 순서로 위로와 기쁨이 따라온다 해서, 그 감정의 정체를 확정할 수는 없다.

순서는 누구나 흉내 낼 수 있는 '겉모양'이다. 마귀는 A, B, C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차례대로 늘어놓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성경은 어떤 체험의 단계도 구원의 증거로 약속하지 않았다. 은혜의 확실한 표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곧 마음에 이루어진 일의 본질뿐이다.

📜 1. 순서를 의심하는 편견은 근거가 없다: 광야를 지나 구원으로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의심한다. 먼저 각성과 공포가 오고, 이어서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율법적 겸비가 오고, 그다음 빛과 위로가 오는 체험이다. 이들은 그런 단계를 사람이 꾸며 낸 틀로 보고, 특히 큰 고통 뒤에 큰 기쁨이 오면 더 반대한다. 에드워즈는 이 편견이 근거 없고 성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구원받는 사람은 '정죄의 상태'에서 '칭의와 복의 상태'로, 전혀 다른 두 상태를 지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대하신다. 그러니 그 두 상태를 실제로 느끼게 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야 자기가 무엇에서 건짐받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는지 알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이끄시는 예로 가득하다. 출애굽 전의 부르짖음, 홍해 앞에서 갇힌 이스라엘, 가진 것을 다 쓴 혈루증 여인, 자신을 '개'로 인정한 가나안 여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던 바울, 풍랑 속 제자들, “부정하다” 외친 나병 환자가 그렇다. 형들에게 죄를 인정하게 한 뒤 자신을 드러낸 요셉도 그리스도의 예표다.

1. 정죄와 구원, 두 상태를 느끼게 하신다
2. 극심한 빈곤을 보아야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안다
3. 위로 전에 광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 방식
4. 출애굽·홍해·혈루증 여인·바울이 예
5. 요셉은 형들의 죄 인정 뒤 자신을 드러냄

> **신명기 32:36-37**
> 백성이 무력하고 의지하던 신이 헛됨을 알 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
> 36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37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 **출애굽기 2:23**
>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신 뒤 애굽에서 구원하심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신명기 8:2, 16

광야 길은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

신명기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누가복음 8:43-44

모든 수단이 다한 뒤 값없이 고침받은 여인

43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태복음 15:22-28

자신을 낮춘 가나안 여인을 자녀로 받으심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끝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함

[8]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레위기 13:45

정결해지기 전 “부정하다” 외치며 비참을 인정함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레미야 3:23-25

치료 전에 죄를 고백하고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음을 인정함

[23]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25]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 2. 두려운 나타나심 뒤의 위로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옛 성도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장면에서도 같은 무늬를 본다. 하나님은 대개 먼저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시고, 그다음 위로하신다.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흑암과 두려움이 먼저 임했고, 이어서 약속이 왔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지만, 그 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호와로 선포하셨다. 엘리야에게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뒤 세미한 소리가 왔다.

그랬다. 그러니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과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사이에는 닮은 결이 있다.

1. 먼저 두려움, 그다음 위로라는 무늬
2. 아브라함·모세·엘리야·다니엘·요한
3.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닮았다

> **창세기 15:12-13**
> 캄캄한 두려움 뒤에 약속이 주어짐
>
>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 **히브리서 12:21**
>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함
>
>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 **출애굽기 34:6**
> 두려움 뒤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름의 선포
>
>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 **열왕기상 19:11-12**
> 바람·지진·불 뒤의 세미한 소리
>
>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다니엘 10:8-11

힘이 빠진 다니엘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일으키심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요한계시록 1:17

죽은 자같이 엎드린 요한을 “두려워하지 말라”로 일으키심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 3.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방식이다

에드워즈는 더 직접적인 예로 넘어간다.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대체로 이 길로 일하신다는 것이다.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은 먼저 모든 것을 팔아 갚으라는 명령을 들은 뒤에 탕감받았다. 탕자는 다 탕진하고 무가치함을 인정한 뒤에 잔치에 앉았다. 곪은 상처는 뿌리까지 다뤄야 하며, 대충 고치는 것은 거짓 치료다. 첫 부모도 심판의 말씀을 먼저 듣고서야 '여자의 후손' 약속으로 위로받았다. 성도는 '피난처로 도망한 자'다. 도망했다는 말에는 그 전에 위험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다루시듯 성도 각 사람을 다루신다. 천둥 속에서 율법을 먼저 들려주시고 몽학선생(가정교사) 아래 두셨다가, 시온의 복음으로 위로하신다. 세례 요한도 먼저 죄와 진노를 보여 주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 오순절의 청중과 빌립보 간수처럼, 위로 전에 극심한 번민에 빠진 예도 분명하다. 그러니 다른 이의 기쁨이 큰 근심 뒤에 왔다는 이유로 그 기쁨을 의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곪은 상처는 뿌리까지 다뤄야 산다
3. 율법의 천둥 뒤 시온의 복음
4. 세례 요한이 죄를 보여 길을 예비함
5. 근심 뒤의 기쁨을 의심하는 건 불합리

마태복음 18:24-27

갚을 수 없음을 직면한 종에게 빚 탕감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누가복음 15:17-24

궁핍해져 무가치함을 인정한 탕자를 받아 주심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

예레미야 8:11

상처를 심상히 고치는 것은 거짓 평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24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끄는 몽학선생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3:7-10

세례 요한이 진노와 도끼를 말해 길을 예비함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도행전 2:37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한 청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16:29-30

떨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한 간수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 4. 그러나 공포 뒤의 기쁨이 곧 증거는 아니다

이제 에드워즈는 반대편을 겨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공포를 율법이 크게 역사했다는 증거로 보고, 그러니 그 뒤의 위로도 견실하다고 여긴다. 에드워즈는 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과 '죄를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놓친다고 지적한다. 성령이 주시는 죄의 자각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행위가 반역했음을 깨닫는 것이다. 반면 지옥의 불길이나 마귀를 떠올리며 떨면서도 자기 죄는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마귀도 허락되면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는 데 능하다. 무서운 얼굴, 뽑힌 칼, 입 벌린 지옥 같은 상상을 새겨 넣는 것이다. 그 목적은 진리를 확신시키는 데 있지 않다. “너는 끝났다, 버림받았다”는 헛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데 있다. 공포는 상상력이 쉽게 자극되는 체질 탓일 수도 있다. 상상과 감정이 서로를 부풀려 정신을 잃는 데까지 갈 수 있다. 또 “내 마음은 돌 같다, 죄가 산더미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엇이 부패했는지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설령 성령이 참으로 각성시키셨다 해도 참된 위로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남은 부패가 교만한 소망과 기쁨으로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산의 고통이 늘 진짜 아기를 낳지는 않는다. 희망적인 꿈을 꾸고 옥에서 나간 떡 굽는 관원장도 결국 나무에 달렸다.

1. 공포를 느낌 ≠ 죄를 깨달음
2. 마귀도 지옥 이미지로 공포를 만든다
3. 체질과 상상이 공포를 키울 수 있다
4. 큰 죄를 말해도 실제 죄는 모를 수 있다
5. 진짜 각성도 거짓 위로로 끝날 수 있다

> **창세기 40:16-22**
> 희망적인 꿈과 '출옥' 뒤에 처형된 떡 굽는 관원장,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하지 않음
>
> 16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19 지금부터 사흘

>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

“참으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모든 여자가 진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다.”

📜 5. 순서가 증거가 못 되는 네 가지 이유

공포가 아니어도,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질서 정연한 죄의 깨달음과 겸비가 있은 뒤에 위로가 와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 에드워즈는 네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마귀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까지 흉내 낼 수 있으니, 그보다 훨씬 낮은 '준비시키는 일'은 더 쉽게 흉내 낸다. 거짓 겸비, 거짓 굴복, 가짜 위로가 실제로 있다. 교만한 왕 사울은 원수로 여긴 다윗 앞에서 울며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범죄하였도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떠나신 사람이었고 계속 다윗의 원수로 남았다. 자기 의를 버린 듯 보이는 사람도 자기 의를 더 은밀하고 미묘한 형태로 바꿔 놓았을 뿐일 수 있다. 의지하던 것에 실망한 것을 겸비로 착각하고, 굴복이라 부르지만 속에 숨은 '거래'가 있다.

둘째, 마귀가 A, B, C를 만들 수 있다면 차례로 놓는 것은 거꾸로 놓는 것만큼 쉽다. 본질을 흉내 내기는 어려워도 순서는 정확히 흉내 낼 수 있다.

셋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체험과 구원의 은혜 사이에 필연적 연결은 없다. 하나님이 그런 연결을 계시하지도 않으셨다. 성경은 은혜의 표지를 수없이 말하지만, 어떤 순서의 율법적 자각과 위로를 구원의 증거로 든 적은 없다.

넷째, 경험이 이를 확인한다. 에드워즈는 최근 부흥기에 영혼들을 돌본 목사들에게 묻는다. 정해진 순서를 정확히 밟은 그럴듯한 회심담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지 않았느냐고.

2. 사울은 울며 회개하고도 원수로 남았다
3. 순서 배열엔 신적 능력이 필요 없다
4. 성경은 순서를 증거로 삼지 않는다
5. 부흥기 경험: 모범 간증자도 넘어졌다

> **사무엘상 24:16-17**
> 사울이 울며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고백함, 감동적 자기 낮춤의 예
>
>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 **사무엘상 26:21**
> “내가 범죄하였도다” 고백 뒤에도 바뀌지 않은 마음
>
>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 **사무엘상 16:14**
> 그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신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음
>
>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직 사단이 할 수 없는 것만을 은혜의 확실한 표지라고 믿어야 한다.”

📜 6. 순서가 없다고 가짜인 것도 아니다

뜨려한 단계를 받았다고 회심이 확실한 것이 아니듯, 그 단계를 받지 않았다고

무력함, 마땅히 받을 심판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하나 뚜렷한 단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셰퍼드 목사의 말처럼, 성도 안의 변화는 처음에 혼돈처럼 보여서 본인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성령의 소리는 들리고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은 은혜가 영혼에 생기는 일을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일에 비유한다.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듯, 새 피조물이 지어지는 과정도 은밀하고 신묘하다.

1. 죄와 비참의 확신은 어떤 식으로든 있다
2. 하지만 뚜렷한 단계일 필요는 없다
3. 처음 변화는 종종 혼돈처럼 보인다
4. 은혜의 탄생은 태 속 잉태처럼 은밀하다

> **요한복음 3:8**
> 성령은 바람처럼 소리는 들리나 오고 가는 곳을 모름(본문의 암시)
>
>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 **전도서 11:5**
>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을 모르듯 하나님의 일을 모름
>
>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 **갈라디아서 4:19**
> 영혼 속 은혜의 탄생 =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
>
>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 **아가 3:11**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마태복음 12:49-50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어머니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시편 139:14-15

은밀한 데서 신묘막측하게 지어짐, 새 피조물에도 해당

14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사야 53:8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겠느냐”,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 7. 성령에게 길을 정해 주지 말고 본질로 시험하라

하나님은 일을 숨기시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시고, 큰 물 속에 길을 내시되 발자국을 감추신다. 사람의 마음에 행하시는 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에드워즈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지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이다. 성령이 걸어야 할 길과 단계를 정해 주는 것이다. 그는 직접 관찰한 바를 말한다. 처음에 혼돈 같던

결국 체험 전체가 정해진 틀에 맞춰 축소된다. 그 틀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목회자들도 같은 일을 한다. 성령은 너무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추적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과 남을 살필 때 볼 것은 하나님이 영혼 안에 이루신 일의 '본질'이고, 단계는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의 본질로 자신을 시험하라고 가르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방법으로 시험하라고는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다. 회심이 '분명하다'는 말은 순서가 분명하다는 뜻이 아니다. 회심은 영적이고 신적인 본질에서 가장 분명한 일이다.

1. 성령의 길을 정해 주는 건 월권
2. 틀이 기억을 골라내고 다시 짠다
3. 단계는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
4. 시험할 것은 열매의 본질
5. 회심은 순서가 아니라 본질에서 분명

> **잠언 25:2**
>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
>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 **시편 77:19**
> 큰 물에 길을 내시되 발자취는 알 수 없음(본문의 암시)
>
>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 **이사야 40:13**
>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느냐, 성령께 단계를 정해 주는 것에 대한 경고
>
>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단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 두어도 좋을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마음이 강하게 끌리거나 밀어내는 의지의 움직임.

양심의 각성
영적으로 무감각하던 사람이 자기 상태의 위험을 깨닫고 깨어나는 것.

죄의 자각(깨달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행동이 반역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것. 단순한 공포와 다르다.

율법적 겸비(율법적 겸손)
'나는 죄인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을 율법 앞에서 깨닫는 낮아짐. 은혜 없이도 가능하다.

칭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

자연인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회심
성령이 사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

준비 사역
회심 전에 죄를 깨닫게 하고 낮추어 은혜 받을 준비를 시키는 성령의 일. 그 자체로는 구원이 아니다.

모조품
마귀가 성령의 일을 겉모양만 닮게 흉내 내 가짜 체험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 요셉이 그 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큰 근심 뒤의 기쁨을 의심하는 것도, 그 순서를 증거로 붙드는 것도 둘 다 잘못이다.
- 하나님은 흔히 광야를 거쳐 위로하시지만, 그 순서는 마귀도 흉내 낼 수 있는 겉모양이다.
- 성경은 어떤 체험의 단계도 구원의 증거로 약속하지 않았다.
- 성령의 길은 헤아릴 수 없으니, 단계는 하나님께 맡기자.
- 나와 남을 살필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이루신 일의 본질과 열매를 보아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8편 ·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그리고 순서대로 · 표지 7·8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